



공동성명서

# 누구를 위한 수도권 대형병원 병상 확대인가?



GCN녹색소비자연대  
National Council of the Green Consumers Network in Korea



(사) 한국YWCA연합회



# | 무한 규모 확장 경쟁의 돌입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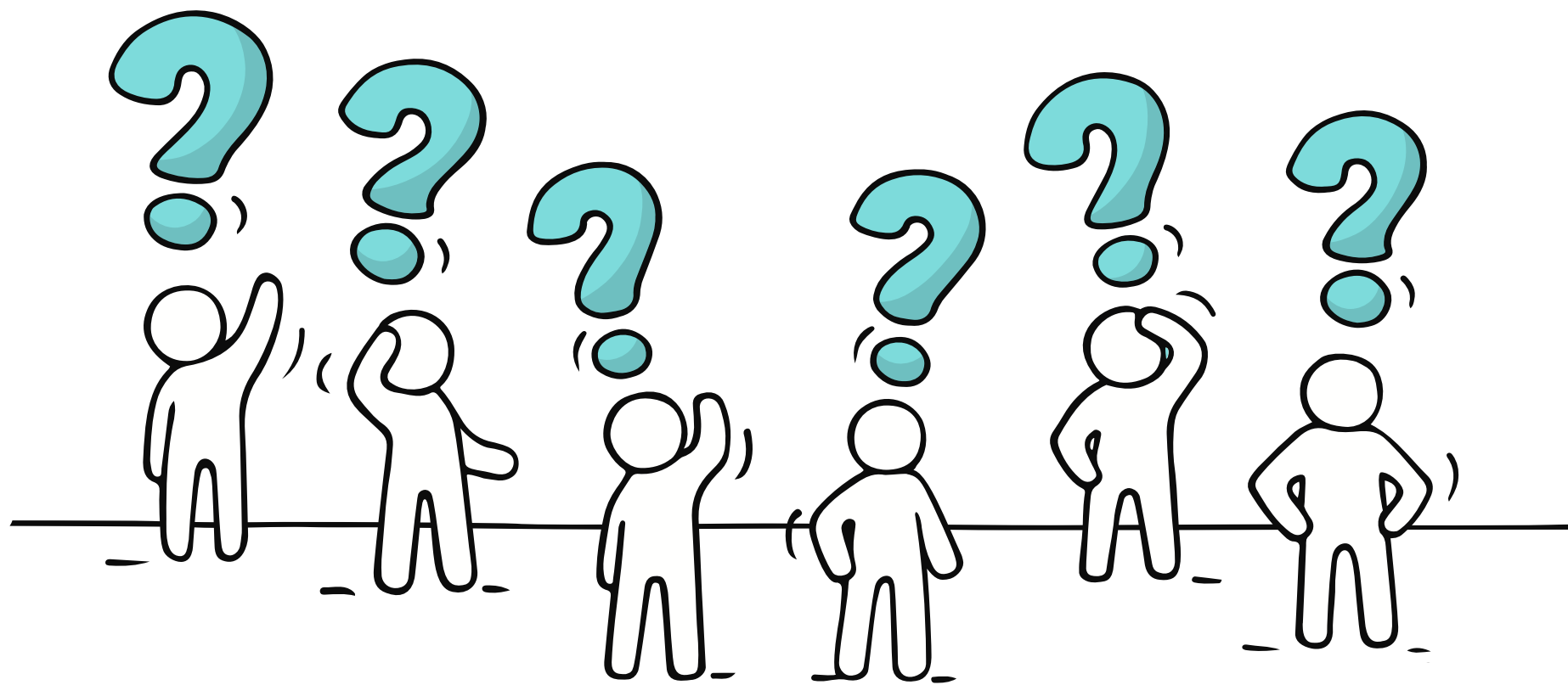
# +6,500

수도권 추가 예정 병상 수

최근 수도권 대형병원들이 앞다투어 병상을 늘리고 진료권을 확대하여  
'몸집 키우기' 경쟁에 나서고 있습니다.



# 진정 국민을 위한 의료개혁인가?



수도권 대학병원들의 무리한 병상 및 진료권 확장은 정부가 국민에게 수차례 공언했던 '수도권 환자 쏠림 완화' 및 '지역 필수 의료 강화' 기조를 정면으로 배치하는 극심한 모순적 행보입니다.

# 의료 불균형의 근본 실태

## 치료망 부족의 문제가 아닙니다

진짜 핵심적인 위기는 치료 인프라의 절대적 양적 부족이 아니라, 수도권과 지역사회 간의 극심한 의료 불균형과 편중 현상입니다.

## 환자가 겪는 차가운 현실

응급실 뱅뱅이, 중증 질환 치료를 위한 대규모 원정 상경 등 지역 필수 의료망 붕괴야말로 시급히 정비해야 할 본질적 고통입니다.

# | 병상 확대가 초래할 고통



## 국민 모두의 재정적 부담

새 병원은 단순히 사립 병원의 투자가 아닙니다.

병상이 가동되는 순간부터 공공의 자산인 건강보험 재정이 막대하게 투입되며, 이는 전 국민의 건보료 부담으로 되돌아옵니다.

# 소비자가 원하는 의료개혁



## 안심하는 일차의료

내 동네 근처에서 언제든지 편하게 믿고 찾을 수 있는 주치의 및 만성질환 관리체계 확충



## 지역 완결형 필수의료

소아, 응급, 분만 등 생명과 골든타임에 직결된 진료가 지역 내에서 신속하게 종결되는 체계



## 단절 없는 돌봄 연계

퇴원 이후에도 방문 진료 및 간호, 지역사회 통합 돌봄으로 유기적으로 이어지는 시스템



# 우리의 5대 핵심 촉구 사항

1

수도권 대형병원은 무분별한 병상 확장을 멈추고 지역의료를 위한 사회적 책임을 다하라

2

보건복지부는 실효성 없는 수도권 병상 확대 계획을 즉각 전면 재검토하라

3

정부는 지역필수의료 강화와 지역완결형 의료체계 구축을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라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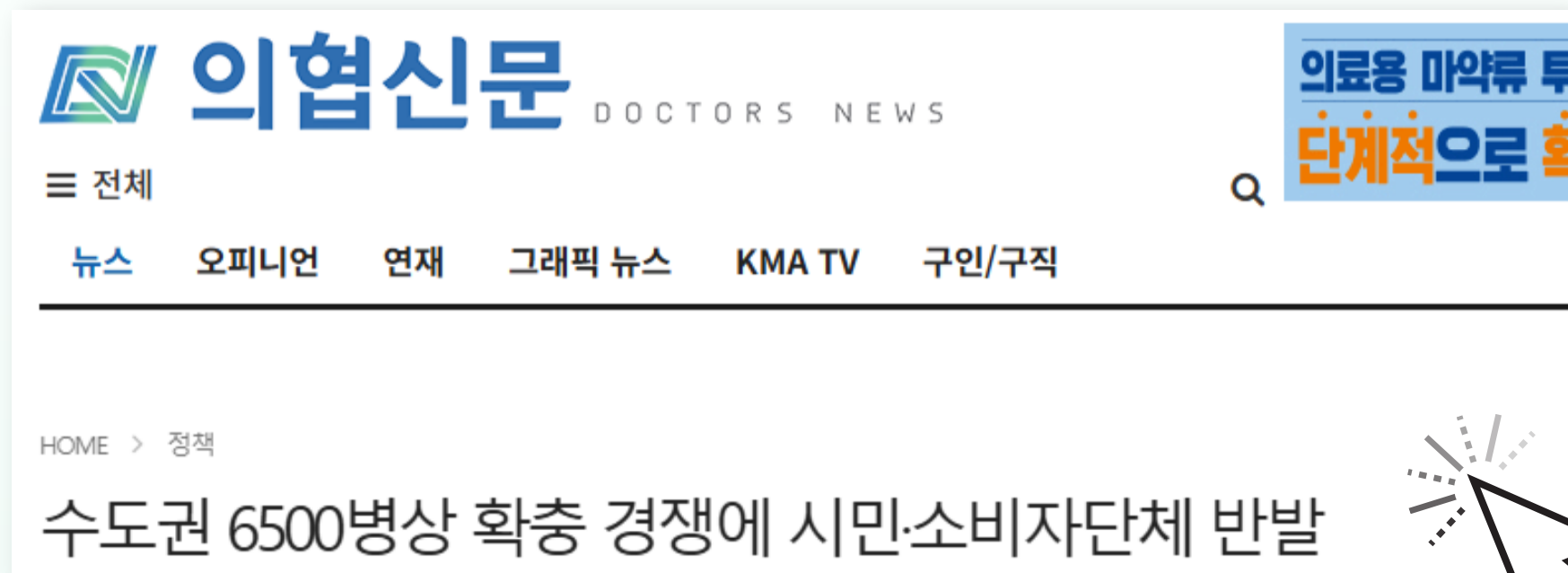
4

지자체는 선심성 '대형병원 유치'를 멈추고 '주민 건강권 보장'에 집중하라

5

의료정책 수립 과정에 시민과 소비자가 직접 참여하는 공론화 체계를 마련하라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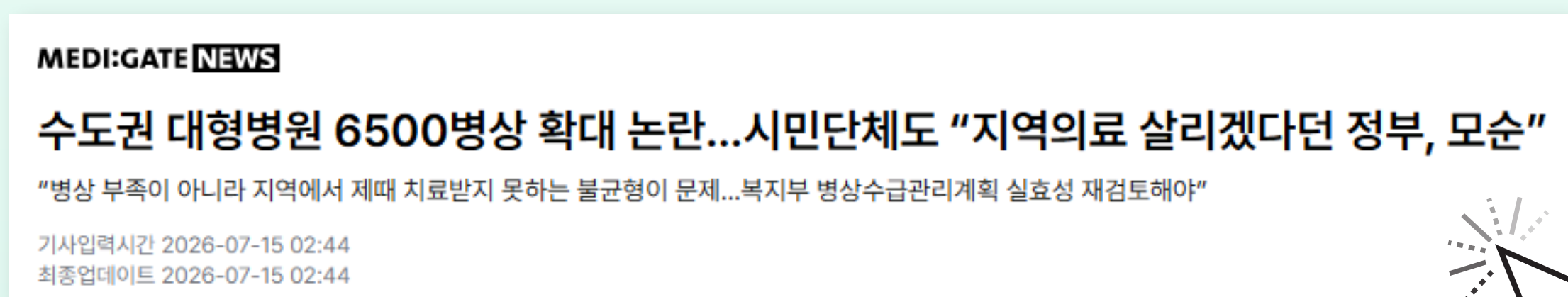
# 이 이슈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다면?



[보도자료 ①] 수도권 6500병상 확충 경쟁에 시민·소비자단체 반발  
26.07.14 의협신문



[보도자료 ②] "수도권 병상만 늘려선 의료개혁 못한다"...  
시민단체, 지역완결형 의료체계 구축 촉구  
26.07.14 한국NGO신문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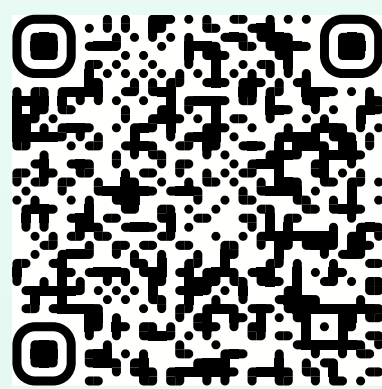


[보도자료 ③] 수도권 대형병원 6500병상 확대 논란...  
시민단체도 "지역의료 살리겠다던 정부, 모순"  
26.07.15 메디게이트뉴스



“의료는 병원의 크기를 확장해 경쟁하는 시장이 아니라, 전국의 모든 생명을 차별 없이 지켜내는 사회적 공공재여야 합니다.”

GCN녹색소비자연대 · 한국YWCA연합회 · 의료공동행동



성명서 바로가기

